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
	배포일자	2023년 4월 14일(금) 총 2매	
담당 부서	수산자원 연구소	담당자 • 자원조성팀장 이준환 ☎440-6402 • 담당자 황인기 ☎440-6418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강화 황산도 해역에 어린 점농어 10만 마리 방류

- 이번 점농어 비롯해 올해 꽃게, 참조기 등 365만 마리 방류 예정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4일, 강화군 황산도 해역에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어린 점농어 10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류한 어린 점농어는 작년 11월에 부화해 한국남동발전 영흥 발전본부 어패류양식장에서 150일 가량 사육한 것으로 병성감정기관의 전염병 검사를 통해 건강한 종자로 판정받은 전장 10cm 내외의 우량종자들이다.

점농어는 서해해역에 서식하는 대표 어종으로 외관은 농어와 비슷하나 몸에 점이 있으며 육질이 단단하고 맛은 뛰어나다. 특히 서해 중부해역과 강화해역에 대형어들이 출현하기 때문에 낚시철에 각광받고 있다.

시 수산자원연구소는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어민소득을 높이기 위해 2005년부터 어린 점농어 약 168만 마리를 인천 앞바다에 지속적으로 방류했다.

이번 방류 이후에는 관련 기관을 통해 방류 수역에 어구 제한 및 포획 금지 기간을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어업인과 낚시인에게 지도, 단속을 병행해 방류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연구소는 이번 점농어 방류를 비롯해 올해는 꽃게, 참조기 등 7종 총 365만 마리의 수산 종자를 생산 방류할 계획이며, 생산된 종자들은 옹진군 연평 해역과 중구의 삼목 해역 등 인천의 주요 어업이 이뤄지고 서식 환경이 적합한 지역에 방류할 예정이다.

김형준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이번에 방류하는 점농어를 시작으로 꽃게, 참조기, 갑오징어 등 인천해역에서 어획되는 고부가가치 지역 특산품종의 지속적인 방류를 통해 인천 관내 해역의 수산자원 증강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붙임> 점농어 방류 사진

